

지난달 물가 25개월來 최저...폭우에 전월比 상추 83% 급등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석유류 25.9% ↓ ...역대 최대 하락폭
폭우에 전월보다 채소류 7.1% 올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3%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3% 올랐다. 이는 2021년 6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축소된 점

도 반영됐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 탓에 상추, 열무 등 채소류 가격은 오름 조짐을 보였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 5%대를 이어갔다. 이후 2월(4.8%), 3월(4.2%) 4%대에 이어 4월(3.7%), 5월(3.3%)에는 3%대까지 둔화했다가 6월(2.7%)부터는 상승률이 2%대로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4%, 3.1%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0.5% 하락했다.

농산물 물가 전년보다 0.3% 상승했다. 채

소류 가격이 1년 전보다 5.3%나 내려가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줄였다. 등락 품목을 보면 사과(22.4%), 고춧가루(8.3%), 토마토(17.3%), 고구마(14.1%) 등의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집중호우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7.1% 상승했다. 상추(83.3%), 시금치(66.9%), 오이(23.2%), 열무(55.3%)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4.1% 내려갔다. 전년 동월 대비 국산쇠고기(-6.4%), 돼지고기(-3.8%), 수입쇠고기(-7.4%) 등은 가격이 내려갔지만, 닭고기는 10.1% 상승했다. 오징어(13.4%), 고등어(9.2%) 등이 오르면서 수산물은 5.9% 올랐다.

공업제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빵(8.1%), 우유(9.3%), 커피(12.3%) 등 가공식품은 6.8%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25.9% 하락하면서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한 이래 최대 내림폭을 기록했다. 경유는 33.4% 하락했으며 휘발유(-22.8%), 등유(-20.1%), 자동차용LPG(-17.9%) 등도 가격이 크게 내

려갔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1.49%포인트(p) 끌어내린 것이다.

전기료(25.0%), 도시가스(21.3%), 지역 난방비(33.4%)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1.1% 상승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세 누진세 완화 영향으로 전기요금에 전월보다 11.2% 내려간 영향이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1.2% 올랐다. 국제항공료(-12.9%), 유치원납입금(-7.6%) 등은 내렸지만 택시료(17.8%), 외래진료비(1.8%) 등은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4.7% 올랐다. 외식 물가는 5.9%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5.5%)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다. 외식 제외 물가도 3.8% 올랐다.

집세는 월세(0.7%)는 올랐으나 전세(-0.1%)가 내리면서 0.3% 오르는 데 그쳤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8%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1년 2월(1.7%)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작

았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올랐다. 지난해 12월(1.1%) 이후 7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다. 근원물가는 15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3.3% 올랐다. 지난해 4월(3.1%)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8월은 전월 대비 -0.1%였기 때문에 올해 8월은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물가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영일 기자



본격 폭염 시작하며 냉방용품 수요 급증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냉방 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서울 소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에어컨이 판매되고 있다.

“최대 60% 할인” 쿠팡트래블, 여름 인기 여행상품 ‘빅세일’ 진행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상품 대폭 할인



쿠팡의 여행 전문부 '쿠팡트래블'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상품을 대

폭 할인해 선보이는 '썸머 바캉스 빅세일' 프로모션"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

뉴스

롯데웰푸드, '스위트 골프 박스' 출시



구성품은 자일리톨·제로 후르츠젤리·구미 당기는 구미·밀크카라멜·미니 쌀약과·8곡 영양갱과 볼빅 3구 골프공 등이다. 특히 롯데웰푸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함께 제공한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는 550만명을 넘어섰다.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

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프를 즐기는 이들을 위해 특별 기획팩을 낸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골프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이색 간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꿈속의 모험” 레고 드림즈 시리즈 출시

레고코리아는 레고 최초로 꿈의 세계를 테마로 한 '레고 드림즈' 시리즈의 신제품 10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동명의 TV애니메이션을 통해 공개된 레고 드림즈는 레고그룹의 최신 자체개발 시리즈다. 평범한 학교 친구 5인방이 사악한 '악몽 대마왕'에 맞서 꿈속 '드림월드'를 지키기 위해 펼치는 모험 속에서 현실과 꿈을 오가는 액션과 상상력으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제품 10종은 드림월드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세트를 두 가지 모델로 바꿔 조합할 수 있는 '2in1' 디자인이 적용됐다. 창의적인 꿈속 풍경과 생명체, 탈 것 등으로 구성됐다.

레고코리아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3일부터 16일까지 공식 레고스토어와 대형마트를 포함한 전국 온·오프라인 레고 매장에서 '레고 드림즈 백팩' 증정 이벤트를 연다. 드림즈 제품



8만원 이상 구매 시 파우치 형태로 보관이 가능한 한정판 백팩이 선물로 제공된다. 증정품 수량은 점포별로 상이하며 품절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레고 드림즈 애니메이션의 후속 에피소드는 9일부터 총 20회에 걸쳐 투니버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방영된다.

서선욱 기자

크린랩, '핫썸머' 기획전...최대 50% 할인



미니미니·이중 지퍼백 등 판매

크린랩이 8월을 맞아 '핫썸머 지퍼백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여행, 캠핑 등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아웃도어 활동에 활용도가 높은 지퍼백 22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핫썸머 지퍼백 기획전'에서는 ▲이중 지퍼백 ▲미니미니 지퍼백 ▲뽀로로 슬라이딩 지퍼백 ▲대용량 슬라이딩 지퍼백 ▲유즈웰 지퍼백 등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의 지퍼백을 만나볼 수 있다.

오유나 기자